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3/17℃ 목포 5/15℃ 여수 7/14℃

단기 4342년 (음력 10월 8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31호 1판 2009년 11월 24일 화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약속어긴 정부…내년 F1 빨간불

문광부 추가 요구사업 문건에 경주장 사업비 880억 누락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나라당 문방위원들과의 비공개 예산 협의에서 F1 대회(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경기장 건설 지원 예산 880억원을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F1 대회 경기장 건설 예산 지원은 법적 근거를 확보한데다 유인촌 문광부 장관이 그동안 수차례 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행태는 정부의 신뢰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광주일보가 확보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0년 예산·기금운용계획 추가 요구사업' 문건에 따르면 문광부는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9개 사업 497억여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공개' 표시가 되어있는 이 문건은 지난 18일 문광부가 올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꼭 챙겨야하는 부처 예산을 설명한 것으로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에게만 보내진 것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문광부는 정작 법적근거가 확실하고 내년에 대회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지원이 절실한 F1 대회 경기장 건설 예산은 제외했다.

반면 문광부는 막대한 기금 손실이 예상되는 대학로복합문화공간 대출금 상환과 관련된 예산과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반영되지 못한 국립극장 신규건립 예산 등을 협조사업으로 적시했다.

여야의 합의로 지원법까지 통과, 법적 근거가 확실한 F1 대회 경기장 건설 예산 지원은 외면하고 오히려 논란의 여지가 높은 사업을 추가 예산 반영 사업으로 챙긴 것이다.

특히, F1 대회가 당장 내년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그 어느 사업보다 예산 지원의 시급성이 요구되고 그동안 유인촌 장관이 수차례 지원을 약속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문광부의 이중적 행보는 정부의 신뢰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유인촌 장관은 이날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 참석, F1 경기장 건설 예산과 관련한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F1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서 정부의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가 돼 이번 국회 예산심의에서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지역 정치권에서 F1 경기장 건설 예산 확보에 보다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문광부 관계자는 "이번 문건에서 F1 경기장 지원 예산이 빠진 것은 국회에서 주도한 사업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 같다"며 "결코 F1 경기장 건설 예산지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산림청 헬기 영암호 추락

탑승자 3명 전원 사망

영암에서 산림청 항공관리본부 소속 산불진화용 헬기 1대가 추락해 탑승자 3명 전원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관련기사 6면〉

23일 정오께 영암군 삼호읍에서 산림청 항공관리본부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소속 러시아산 '까모프(KA-32T)' 헬기 1대가 영암호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정조종사 박용규(52)씨와 부조종사 이중배(46)·이용상(42)씨 등 3명이 숨졌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19분 영암 산림항공관리소에서 출발, 같은 날 정오까지 정조종사 양성훈련을 마치고 출발 장소로 돌아올 예정이었다. 이 훈련은 정조종사가 부조종사를 대상으로 산불진화(담수 및 투하)·화물공수·항공방제 등을 교육하는 것이다.

■ 영암 헬기 추락 지점

사고 헬기는 영암호 상공에서 산불진화 시 사용되는 물을 퍼 올리는 교육을 하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암산림항공관리소는 이륙 직후 사고 헬기와 교신이 중단되자 'Bell-206 헬기'를 동원해 추적에 나섰고, 이날 오후 2시29분 영암호에서 사고 헬기를 발견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사고 지점에서 시신 3구를 수습해 광주 모 장례식장으로 옮겼다.

한편 산림청은 이날 사고 발생 직후 사고대책본부를 꾸려 헬기 인양 등 사고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그러나 탑승자 전원이 숨져 원인을 밝히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영암=이종행·이상휴기자 golee@

송광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에서 나온 대방광불화엄경합론(大方廣佛華嚴經合論)〈왼쪽〉. 개금(改金) 과정에서 조선시대 중기(15~17세기) 복장유물 450여 점을 쏟아낸 목조관음보살좌상.

송광사 불상 내부서 '보물급 불경' 발견

조선 중기 유물 450점도

순천 송광사 목조 관음보살좌상 안에서 대각국사 의천(義天·1055~1101년)이 간행한 불서의 판본이 첫 발견되는 등 15~17세기 조선 중기 유물 450여점이 나왔다.

문화재청은 23일 "금을 다시 입히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 불상 안에서 의천이 간행한 대방광불화엄경합론(大方廣佛華嚴經合論) 3권과 각종 경전, 의복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대방광불화엄경합론은 전체 81권 중 제73~75권이며, 의천이 11세기에 간행한 것을 조선 세조 8년(1462) 전라도 광주목으로 하여금 다시 판각토록 해 간행한 판본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이 불경은 현존 유일본으로 불교문화사, 서지학, 인쇄문화사에 귀중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또 발원문을 적은 남성용 저고리와 여성용 배자(褙子) 두 점이 발견됐고, 동일 직물로는 시기가 가장 오래된 명주, 모시, 무명실 등으로 짠 항라(亢羅)도 나왔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발견된 유물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발굴을 통해 그동안 조성 시기가 알려지지 않았던 이 불상은 1662년(현종 3년) 소현세자 셋째 아들인 경안군(慶安君·1644~1665)의 처 허씨(許氏·~1684)가 발원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ja@

성범죄 교사 영구 퇴출

교과부 징계 대폭 강화

성범죄 교원들은 재임용에서 제외되는 등 교단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솜방망이 처벌' 여론이 높은 성범죄 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23일 확정해 발표했다.

교과부는 사립학교법,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을 내년 말까지 개정하면서 이 개선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법률전문가, 학부모 등 외부 인사를 30% 이상, 여성위원을 30% 이상 각각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온정주의적 징계를 막기로 했다.

특히 미성년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해 감봉, 견책 등 경징계도 가능했던 것을 비위·과실의 정도와 무관하게 중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 폭력 등 교원 4대 비위와 관련한 징계자는 교장 중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들 4대 비위로 파면·해임됐을 때뿐 아니라 징계 과정 중 의원면직한 때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재임용을 금지해 교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 임용 때 10년 이내의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전 생애에 걸쳐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도록 하고 교직원 및 학교 버스 기사 등도 일생의 성범죄 기록을 살피도록 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문의 : (062) 220-0541
조수미 콘서트 Dream with Me 12월 6일(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김장훈&싸이 완타치 12월 26일(토) 광주실내체육관

알림

지역작가 日 규슈 미술여행

11월 28일~12월 1일…한·일 공동 전시회도

광주일보사와 함평 잠월미술관(관장 김광옥)은 한·일 미술 교류를 위해 오는 28일~12월1일 일본 규슈 오이타현 일대를 답사하는 '규슈 미술여행'을 떠납니다.

(주)조이트래블(대표이사 최금환)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미술여행에는 광주·전남지역 작가 15명이 참가해 일본 작가들과 전시회를 열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벳부 현대예술페스티벌(4월11일~6월14일)을 주관했던 카츠 마사미치, 미시로 히로토, 픽 스터 나츠미, 아카시모 모카, 미사와 히로키 등 20여명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오는 29일 일본 현지에서 공동 스케치를 하고,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을 방문해 한·일 미술 교류의 물꼬를 트게 됩니다.

아울러 광주비엔날레를 일본 미술계에 홍보하는 한편 일본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유치활동도 펼치게 됩니다.

- 기간 : 11월28일~12월1일(4일간)
- 장소 : 일본 규슈 오이타현 일대.
- 후원 : (주)조이트래블
- 참여작가 : 김광옥 김송근 박문수 이혜숙 채종기 김종안 송진영 김순희 박영복 정희창 박태후 임혜숙 서재경 김현덕 고영준

光州日報社·함평 잠월미술관